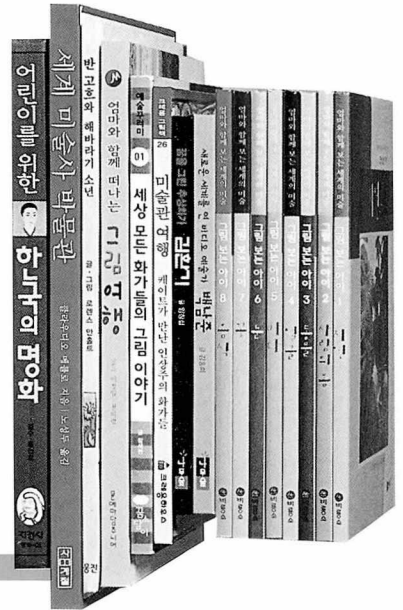


# 어린 영혼들에게 예술혼 불어넣는 어린이용 미술책

예술가들의 생애와 작품세계 조명한 책들이 주류...

그림과 서양미술사에 치우친 소개 아쉬워

요즘 서점의 어린이책 코너에 미술관련 책들이 늘고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계 예술사조의 흐름을 짚은 책부터 예술가들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조명한 책, 특정 주제 아래 동서양 예술을 자연스럽게 한 자리에 모아 놓은 책들까지 다양하다. 이 책들은 어린이들이 예술가의 상상력과 다양한 표현기법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른들이라 해도 미술이라고 하면 으레 좋지 만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물론 그 이면엔 오랫동안 지속돼온 주입식 미술교육의 녹록치 않은 '공'이 자리하고 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 밀레의 <이삭줍기>, 고흐의 <해바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자유롭게 감상해보라 하면 주저한다.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가슴으로 먼저 느끼기 전에 머리 속에 주입된 패턴에 따라 그림을 읽도록 길들여진 것은 아닐까.

### 동화읽기와 명화감상의 두 마리 토끼 노리는 책들

최근 출판계에서는 어릴 때부터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소개한 책들은 책장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미술과 친해질 수 있도록 이끄는 어린이 미술 길라잡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렇다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미술을 감상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바로 이야기, 곧 동화와 접목하는 것이다. 크레용 하우스의 <미술관 여행> <미술관에 핀 해바라기>(이상 제임스 메이휴 글·그림, 사과나무)와 웅진닷컴의 <내가 만난 미술가 그림책> 시리즈, 다림의 <야,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김기정), 김영사의 <안나와 떠나는 미술관 여행>(비오른 소르틀란 글·라르스

엘링 그림, 박효상)이 그 면면이다.

<미술관 여행>과 <미술관에 핀 해바라기>는 할머니를 따라 미술관 구경을 간 어린아이가 미술관에서 자유롭게 명화 속을 드나들며 그림 속 사물과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지금까지 세권이 출간된 <내가 만난 미술가 그림책> 시리즈는 위대한 미술가들과 친구가 됐던 아이들이 나와서 미술가들과 우정을 나눈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화를 바탕으로 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책장을 넘기며 자연스레 그림 감상을 하고 화가의 생애도 엿볼 수 있다. <야,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그림 속에 숨겨진 상상> <화가는 어디 있을까> 등의 동화들을 읽으면서 그림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안나와 떠나는 미술관 여행>은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아이가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환상적인 기법을 사용해 눈길을 끈다.

### 화가들의 일대기 조명한 시리즈 출간도 활발해

아이세움의 <그림으로 만난 세계의 미술가들> 시리즈는 '미술이란 무엇일까' 하는 물음으로 시작해 미술작품의 감상과 작품 속에 담긴 의미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다. 지금까지 한국편으로 김홍도와 이충섭이, 외국편으로 빈센트 반 고흐와 미켈란젤로가 소개됐다. 무엇보다 이 시리즈는 생애 위주의 위인전에

서 흔히 발견되는 천재성 강조나 일화 중심에서 벗어나 작품과 작가의 생애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중요한 세 축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부터 <어린이미술관>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 나무숲은 지금까지 박수근, 백남준, 김정희 등 모두 국내 미술가 다섯명의 삶과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어린이들이 예술가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보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꾸렸다. 특히 이 시리즈는 다양한 사진과 자료, 작가의 독특한 취향과 연보 등을 곁들여 한 예술가의 생애를 총체적이고 다채로운 시선으로 조명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성우의 <화가의 마을> 시리즈는 모두 15권으로 구성됐는데, 각권마다 다른 소재의 이야기들을 통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모두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가 화가의 생애와 작품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 그려진다. 아이의 눈으로 그려진 이야기를 통해 그림에 대한 화가들의 열정과 성장배경, 그림의 주요 소재, 관심분야, 미술관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길벗어린이는 일찌감치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 시리즈는 '내가 처음 만난'이란 이름에 걸맞게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림과 낮

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림을 설명하는 방식도 짝짓기, 같은 것과 다른 것 알아맞히기, 연상 게임 등으로 꾸며졌다. 길벗어린이는 또 그림에 얽힌 설화나 전설을 통해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내가 처음 가 본 그림 박물관> 시리즈도 펴내고 있다.

화가의 전기를 다룬 시리즈는 아니지만, 비룡소의 <그림 보는 아이(전8권)>와 성우의 <그림 속 사람들(전8권)> 시리즈는 이채로운 형식으로 책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이 시리즈들은 모두 아이들을 위한 미술안내서로 각각 8개의 주제 아래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모았다. <그림 보는 아이>는 대가들의 작품과 여러 문명의 다양한 예술적 성취를 자연, 사람, 동물, 얼굴, 음식 등의 주제로 엮었다. 이 시리즈는 특히 '엄마와 함께 보는 세계의 미술'이란 부제에 걸맞게 자연의 품에서 좋은 경치를 보듯 엄마와 아이가 함께 그림을 감상하며 거기서 연상되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꾸며졌다. <그림 속 사람들>은 상상력, 느낌, 전쟁, 공간 등 8가지 주제를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림 설명뿐 아니라 조각, 사진, 애니메

이션,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주제를 흥미롭게 이끌어가고 있다.

#### 그림과 서양미술사에 치우쳐 아쉬워

사계절이 펴낸 <세계 미술사 박물관>(클라우디오 메를로, 노성두)은 선사시대 동굴 그림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유럽 중심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미술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아름다운 작품들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술가들의 땀냄새 나는 작업현장을 생생히 보여준다. 조각가와 화가, 건축가를 아우르는 시대별, 지역별 미술 현장을 세밀한 그림으로 재현했으며, 각종 미술작품의 배경이나 작업 과정 등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세계 미술사 박물관>이 예술가들의 작업장 모습을 담았다면, <엄마와 함께 떠나는 그림여행>(이정임 외, 문예마당주니어)은 미술관에 들러 미술작품들을 직접 감상해 보도록 이끈다. 이 책은 전세계 미술품의 보고 루브르·오르세·로댕 미술관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명화에 얽힌 궁금증을 풀어준다. 또 다양한 미술재료에 대한 설명과 대표적인 화가들의 연보, 시대별 작품 연보도 실어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소담출판사가 펴낸 <세상 모든 화가들의 그림 이야기>(장세현)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부터 어린 시절의 꿈과 환상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샤갈의 <나와 마을>까지, 명화 속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간다.

대부분의 미술책들이 서양미술에 치중한다면 지경사가 펴낸 <어린이를 위한 한국의 명화>(홍선표)와 <어린이를 위한 한국 현대 명화 감상>(이규열 외)은 우리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혼을 조명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한국의 명화>는 고려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양화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전통미술의 세계와 근대 이후 서양화와 함께 전개돼온 한국 미술의 특징을 살폈다. <...명화 감상>은 현재의 한국 미술을 이끌어온 원로 작가 31명의 그림을 모았다. 동양화와 서양화로 나눠 화가들의 대표작품 3점씩을 골라 읽고 그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했다.

그런데 미술작품에 대한 소개는 대부분 그림과 서양미술사에 치우쳐 있다. 또한 조각과 건축, 공예와 현대의 설치 미술 등 인접 예술 장르 등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미술관을 심어주기 위해 명작뿐만 아니라 더욱 다채로운 미술 세계를 보여주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박옥순기자

## 다채로운 미술의 세계 보여주는 다양한 상품 개발해야

<어린이미술관> 시리즈 기획한 나무숲 강여경 대표

나무숲 강여경 대표(42)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다. 평소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술의 대중화, 생활화에 관심이 많아 지난 1999년 출판사를 설립했다. 지금까지 두뇌의 기능을 미술과 접목시킨 미술실기 지도서 <오른쪽 두뇌로 그림 그리기>(벤티 에드워즈, 강은엽)와 <어린이미술관> 시리즈를 기획했고 앞으로 미술을 중심으로 한 예술서적들을 펴낼 예정이다.

###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이성을 바탕으로 감성을 개발하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 21세기를 앞두고 모두들 '예술의 세기'가 도래했다고 부르짖었지만 '그 예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예술이 풍부한 감성만으로 이뤄지는 것인가' 하는 자각은 부족했다. 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예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다."

### 최근의 어린이 미술책 출간 붐을 어떻게 보는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미술(넓게는 예술)이 출판의 한 영역으로 충분히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줘 무척 고무적이다. 또 '미술=창의성'이란 인식이 확대되면서 상품성을 갖추게 됐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유사 상품을 과잉생산하는 경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초기 상품이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함량 미달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눈앞의 이익만을 좇기보다 출판문화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 국내 어린이책 출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번역출판을 꼽을 수 있다. 어린이용 미술책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번역물의 출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범람이 문제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의 정서가 채 자리잡기도 전에 번역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이제는 양보다는 질을 앞세운 출판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힘든 가운데서도 오랜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 어린 시절은 삶을 준비하는 기간인 만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시각을 선사해야 하며, 그에 걸맞는 상품은 무궁하다고 생각한다."